

| 2026-8호 (통권 27호)

구미 현안분석 Brief

2026. 8.

| 목차 |

1.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육성 방안
2.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과 구미시 대응방안

CONTENTS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육성 방안 4p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과 구미시 대응방안 20p



01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육성 방안



박수현 선임연구원(anna2224@geri.re.kr / 054-479-2263)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육성 방안

◆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구조 전환

- 자율주행 기술이 AI 기반 인지·판단·제어로 고도화되며, 미래 모빌리티 차량의 경쟁력이 기계적 성능을 넘어 전자·ICT 기반의 핵심 부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글로벌 기업은 기술 내재화와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완성차·부품·IT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및 부품시장 진출이 본격화
- 최근 정부도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상용화 단계로 확대하며 핵심기술 개발·부품 국산화와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 구미 전자·ICT 제조기반을 활용한 전동화·SDV 핵심부품 산업 육성

- 구미는 전자·ICT·반도체·디스플레이·정밀가공과 자동차·전동화 관련 기업이 집적
→ 기존 제조역량을 활용한 미래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전환 잠재력 보유
- 지역 공급망을 기반으로 미래차 전환 가능기업 발굴 및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관련 핵심 부품산업을 특화분야로 집중 육성하여 구미형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01 > 배경

1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 (ADAS와의 구별)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안전을 돕는 보조 기능 ADAS*에서 출발

*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위험 상황(차선이탈 경고, 사각지대 감지 등)을 차량이 대신 감지하여 경고하거나 제어하는 기능

- 보조 기능이 점차 정교해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일정 구간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 (자율주행 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책임에서 차량 책임으로 단계적 이동 (Lv.0~5)하는 형태로 분류, 현재 상용화된 일반 차량은 주로 Lv.2단계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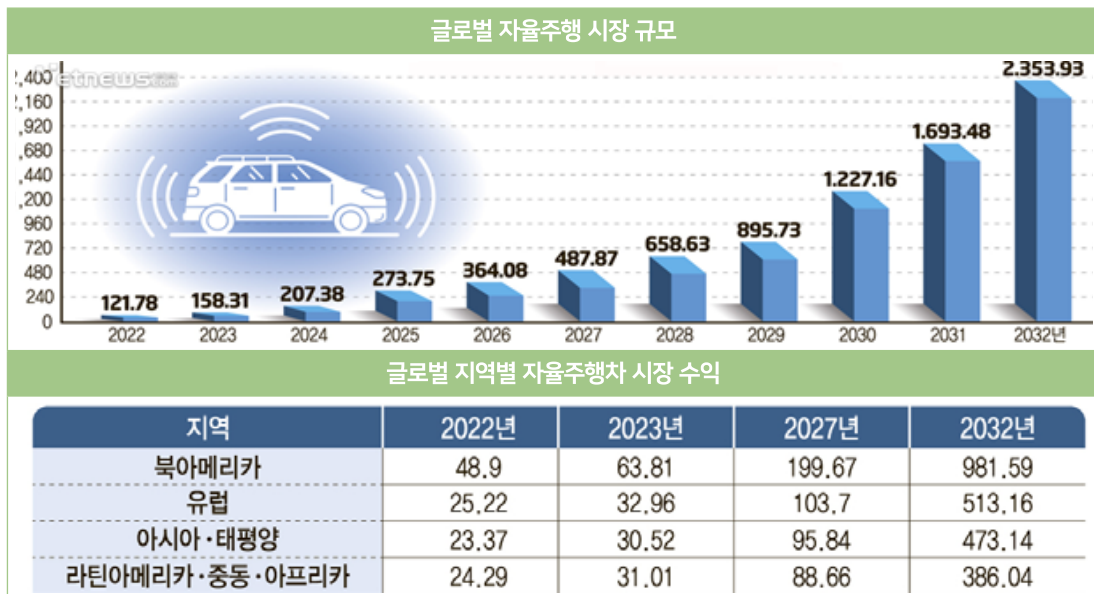
- 미국자동차기술회(SAE)가 제시하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총 6단계로, Lv.3 이상부터 차량이 운전의 주된 책임을 스스로 담당 자율주행차로 분류
- 결국 자율주행 기술의 본질은 사람의 역할을 차량이 스스로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

미국자동차기술회(SAE) 기준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					삼성SDS 기준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	
단계 (Level)	정의	주행 제어 주제	주행 중 변수 감지	차량 운영 주제	단계	설명
00 No Automation	전통적 주행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 시스템은 경고와 일시적인 개입만	인간	인간	인간	0 LEVEL	비자율화 자율주행 시스템 없음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해야 하는 단계
01 Driver Assistance	부분 보조 주행 속도 및 차선거리 유지, 차선 유지 등 시스템이 일정 부분 개입	인간 및 시스템	인간	인간	1 LEVEL	운전자 보조 방향속도 제어 등 특정 기능의 자동화 운전자는 차의 속도와 방향을 항상 통제
02 Partial Automation	보조 주행 특정 상황에서 일정 시간동안 보조 주행. 필요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	시스템	인간	인간	2 LEVEL	부분 자동화 고속도로와 같이 정해진 조건에서 차선과 간격 유지 가능 운전자는 항상 주변상황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
03 Conditional Automation	부분 자율주행 고속도로와 같은 조건에서 자율 주행. 필요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	시스템	시스템	인간	3 LEVEL	조건부 자동화 정해진 조건에서 자율주행 가능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자율주행 한계 조건에 도달하면 시간 내에 대응해야 함
04 High Automation	고도 자율주행 제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4 LEVEL	고도 자동화 정해진 도로 조건에 모든 상황에서 자율 주행 가능 그 밖의 도로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
05 Full Automation	완전 자율주행 일송자는 목적지만 입력. 운전대의 핸들 제거 가능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5 LEVEL	완전 자동화 모든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 불필요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

* 출처: 미국자동차기술회(SAE), 삼성SDS 공식 홈페이지

2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성장

- ☑ (시장 확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2022년 1,210억달러(한화 171.3조원)에서 2032년 23,530억달러(한화 3,331조원)로 성장
- 2032년 기준 지역별 시장 성장세를 살펴보면, 북아메리카(9,816) > 유럽(5,131) > 아시아태평양(4,731) > 라틴 중동 아메리카 순(3,860)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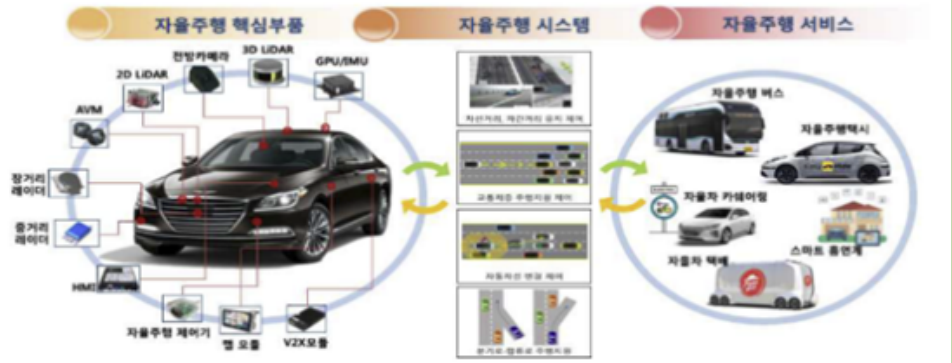


* 출처: 프레지던스 리서치

02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구조 및 기업 동향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후방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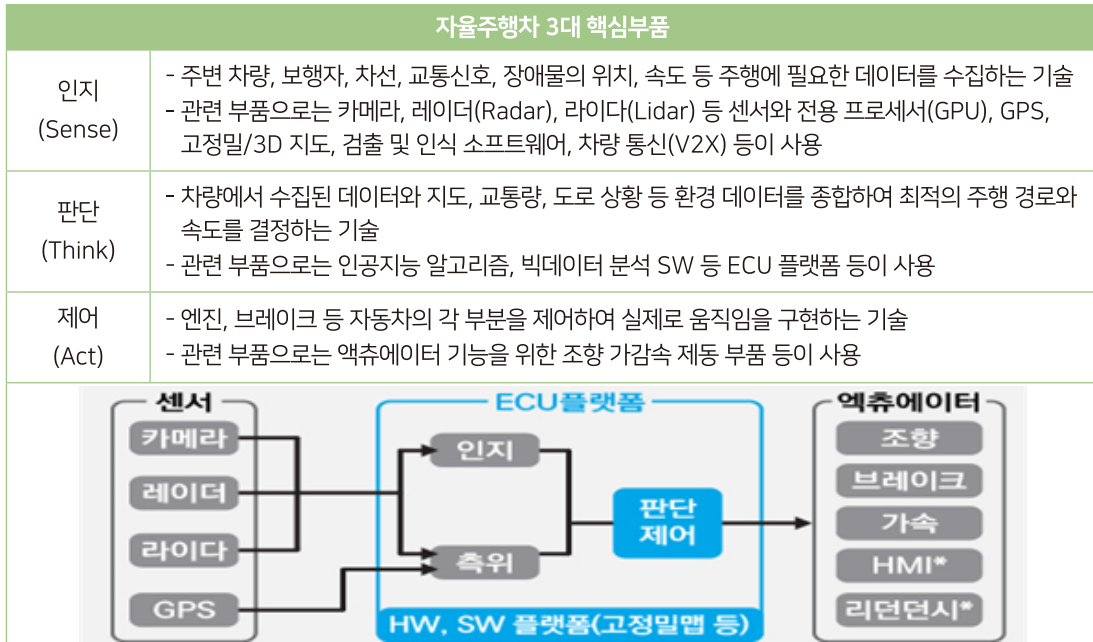
- ☑ (개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전후방 산업은 크게 '자율주행 핵심부품 산업'
→ '자율주행 시스템 산업' → '완성차 및 IT 기반의 서비스 및 플랫폼 산업'의 구조로
이루어짐

구분	자율주행 핵심부품 산업	자율주행 시스템 산업	완성차 및 IT기반의 서비스 및 플랫폼 산업
주요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SW플랫폼, 인포테인먼트, 통신 등	 자율주행기술 (딥러닝 기반 인식, 판단, 제어기술) 및 보안기술 등	 교통수단(모빌리티), 로봇택시, 자율셔틀/버스/트럭 등
관련 제품			

* 출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관계부처합동(2019)

2 자율주행 모빌리티 3대 핵심부품산업 구조

- ☑ (3대 핵심부품) 자동차 산업의 경쟁축이 기계적 성능 중심에서 전동화로 변화하며, 단순 부품에서 고성능 컴퓨팅 장치, 통신모듈, 차량용SW 등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다양한 핵심부품 연계를 요함
-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구성하는 부품은 ①정보 신호를 입력받는 인지기술관련 부품, ②정보 신호를 처리하는 SW 등 판단기술 관련 부품, ③조향 제동 가속 등 제어기술 관련 부품으로 구분
 - 3대 핵심부품 중 제어부품은 기존 자동차 제어 부품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인지 및 판단 부품은 자율 주행 구현에 특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



* 출처: 서울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① (인지기술 부품) 차량의 주변 상황 인식을 위해 필요한 센서(LiDAR Radar Camera)의 설계 및 제작과 신호처리 알고리즘 구축 등의 관련 기술이 포함되며, 위치 정밀측정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센서 기술 뿐만 아니라, ▲고정밀 GPS 기술, ▲실시간 지역 정밀지도 구축, ▲관련 DB 등 인프라설비 구축 등도 인지부품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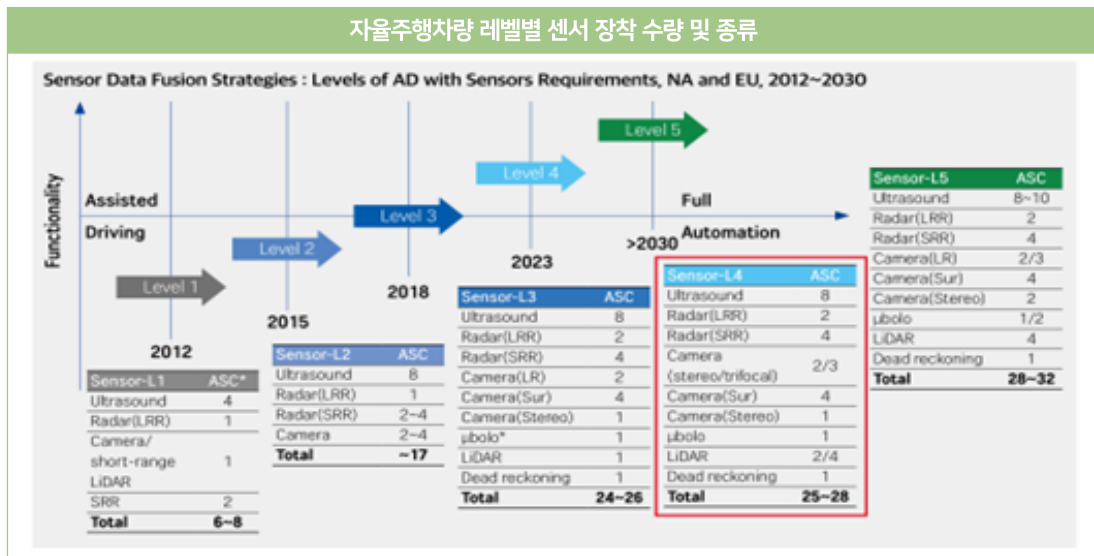


* 출처: 제너럴모터스

☑ (차세대 인식 부품에 의한 성능 향상) 자율주행 기술고도화에 따른 주행인지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에 장착되는 인지기술 부품의 수가 급격히 증가 및 단일 센서 기능 향상과 다양한 센서 융합전략이 시행 중

-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Lv.4 수준의 차량은 초음파 8개, 장거리 레이더 2개, 근거리 레이더 4개, 스테레오 또는 Tri-focal 카메라 1개, 주변환경 카메라 4개, 라이다 4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량 레벨별 센서 장착 수량 및 종류



* 출처: Frost&Sullivan

② (판단기술 부품) 인공지능 및 차량용 SW 관련 기술로써, 인지 판단 제어 등 모든 자율주행 단계에 관여하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품

- 최근 범용적인 인식 센서에 AI 기술을 적용한 자율 판단 기술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체 판단 과정을 AI로 한번에 구현하는 엔드투엔드방식*의 연구개발이 활발

* 엔드투엔드(End to End) 방식: 인지, 판단, 제어 등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카메라 정보와 조향 정보를 학습용 데이터 셋으로 쌓고 이를 기반으로 주행 방법과 알고리즘을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

- 특히 판단기술은 사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인식 성능 강건성 확보를 통해 판단을 거칠 수 있는 부품의 안전도 확보가 필요

* 물리적 공격, 적대적 노이즈 공격, 인공지능 Edge-Case, 단순 형상인식에 의한 인식오류 등

③ (제어기술 부품) 인지기술을 통해 파악된 위치와 주변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현재 상황에 맞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부품

- 실제 운전자가 조작하는 모든 장치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져, 기존의 능동 차량제어 기술인 구동제어, 제동제어, 조향제어, 현가제어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
- 고신뢰성 이중 안전 센서 및 액추에이터 개발, 기능 안전 요구 사양기반 설계, 위험 분석 및 검증을 통한 Fail Safety 제어기술 등 고도화가 진행

3 글로벌 기업 동향

☑ (동향)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은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완성차 업체 및 ICT 업체들의 신규 진입이 활발하며, 업체 간 주도권 경쟁 및 수평적 협업 확대

-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은 부족한 SW 역량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및 합작사 설립 등을 추진
- 신생 완성차 제조사들은 자체 HW/SW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및 열 위한 분야의 기술은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확보
- 빅테크 기업들은 우수한 SW 기술력 기반 →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집중
- AI 반도체 OS 기업들은 완성차 제조사와 협업 → 자율주행 플랫폼 제공

최근 주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의 투자 및 협업 사례		
분류	기업	주요 사례
기존 완성차 제조사	폭스바겐	중국 AI 반도체 기업인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협력하여 중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카리존(CARIZON)' 설립('23.01)
	볼보	자율주행 SW 기업인 '젠시액트(Zenseact)'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23.01)
	제너럴모터스 (GM)	자율주행 SW 스타트업인 '크루즈(Cruise)'를 1조2천억원에 인수하여,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추진('16.03)
신생 완성차 제조사	테슬라	AI HW 스타트업(사명 미공개)을 2조9천억원에 인수('26)
	니오	차량용 반도체 및 센서 전문 기업인 '악세라(Axera)' 및 '옵니비전(OmniVision)'과 협력하여 합작법인 설립 → 자율주행 칩 공급망 확대 및 개발 비용 분담
빅테크 기업	구글	자율주행차 부문 분사하여 '웨이모(Waymo)'를 설립 → 사업 확대에 23조 3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26)
	바이두	미국 라이다 선두 기업인 '벨로다인 라이다(Velodyne Lidar)'과 대규모 센서 공급 계약 체결 → 로보택시 운행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아마존	자율주행 기업 '죽스(Zoox)'를 12억 달러에 인수 → 미국 로보택시의 공공 유료 승차 서비스 준비 중('20~)
AI 반도체 OS 기업	엔비디아	차량용 지도 개발 업체 '딥맵(DeepMap)'을 인수 →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 '엔비디아 드라이브'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 모빌리티 기업에 공급('25~)
	인텔	ADAS 기업 '모빌아이(Mobileye)'를 인수 → 자율주행 환경 지원을 위한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인텔 자동차 솔루션 플랫폼' 제공('25~)
	퀄컴	스웨덴 자동차 부품사 비오니아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어라이버(Arriver)'를 인수 → 차량용 반도체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라이드' 경쟁력 강화('22~)

※ (참고)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타임라인으로 알아보는 모빌리티 핵심부품 시장의 변화 ※

☑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 기업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과정은 ①외부 양산 부품 의존 → ②AI 신경망 기반 학습 전환 → ③자체 부품 양산 및 기업 수직통합으로 이어지는 3개 단계의 타임라인으로 구분

구분	1단계('14~'16)	2단계('16~'19)	3단계('19~현재)
구조 분석	외부 협력사(부품 기업) Mobileye 의존도 높음	외부 협력사(AI 기업) NVIDIA 의존도 높음	자체 개발 (스타트업 수직 통합)
	- 외부 양산 핵심부품 의존	- AI 학습 신경망의 도입과 자체 핵심부품 개발 착수	- 자체 부품 양산 및 관련 기업 수직통합 확장
센싱 방식	레이더 + 카메라 + 초음파	레이더+카메라(8대) + 초음파	자체 카메라(Tesla Vision) 생산 양산하여 도입 → 다른 센싱부품 부착X
의사결정 방식	Rule 기반 ADAS	Rule + AI 신경망	End-to-End AI (FSD v12)
컴퓨팅	Mobileye EyeQ3	NVIDIA Drive	자체 FSD 칩 제작 AI4 → AI5
주요 이슈	- 협력 업체 컴퓨팅 카메라 EyeQ3 탑재 - 그러나 계속되는 사고 이슈로 협력 종료	- Rule → AI 학습 전환 범용 칩 한계 인식 - FSD 하드웨어 개발 착수	- 자체 칩(FSD) 양산 시작 - AI 플랫폼 AI5 설계 완료
결과	- 자율주행 시장 빠른 선점 - 그러나 ADAS 통제권 갈등 으로 협력 종료	- AI 학습 패러다임 전환 발판 마련 - 외부 기업 의존 한계 인식	- 데이터-AI-칩 센서가 완성된 테슬라 자체 수직통합 루프 완성 ⇒ 시장 경쟁우위 확보

📖 (1단계, '14~'16) 초기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ADAS 카메라 기업 'Mobileye'과의 협력 강화

- ☑ 상용화에 성공한 ADAS 카메라 기업 Mobileye 인지 기술을 활용해 차선 인식, 전방 차량 및 보행자 인지, 충돌 경고 등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기술 리스크를 낮춘 전략적 접근 시행
- ☑ 그러나 자체 SW 기술과 협력사의 부품에 적용되는 플랫폼(Mobileye EyeQ3)의 기능 확장 속도 격차가 잘 좁혀지지 않았고, 플로리다 사고*를 계기로 Mobileye 및 부품 납체업체들과의 협력 종료

* 플로리다 Williston 인근에서 Autopilot 모드로 운전하던 Tesla Model S가 흰색 트레일러를 제때 인식하지 못해 경고나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16년)

📖 (2단계, '16~'19) NVIDIA와의 협력과 AI 학습 신경망의 적용

- ☑ '완전자율주행 하드웨어' 전환을 발표('16)하여 더 많은 센서, 더 강한 컴퓨팅 파워 확보를 위해 NVIDIA와 협력 → NVIDIA의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용 고성능 AI 연산과 SW 패키지를 함께 활용
- ☑ NVIDIA의 AI 연산 기술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대응 방식을 스스로 학습해 나갔으나, 카메라가 8대로 늘어나고 수많은 신호를 고해상도로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문제 발생
- ☑ NVIDIA는 자사 칩 성능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Tesla는 외부 플랫폼 의존시 차량 전력 설계, 모델 구조 등이 외부 로드맵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 → 자체 FSD 하드웨어 개발 착수

📖 (3단계, '19~현재) 자체 칩 양산을 통한 내재화와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의 부상

- ☑ Tesla의 AI 학습 기반 접근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자 타 경쟁사도 뒤늦게 기존 Rule 기반 접근에 AI 학습 방식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기술개발 전략을 수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부상
- ☑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탑재하면서 단순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차량 탑재 연산장치의 비용 전력 응답 시간을 Tesla가 직접 통제 가능 → 사람의 개입 없이 무인자율 주행이 가능한 상용 자율주행차량을 선보이며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경쟁 우위를 구축

4 국내 기업 동향

☑ (동향)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기존 산업을 주도해 온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발전, IT 업계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

-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은 Lv.2 제품 양산 확대와 Lv.3 제품개발 투자의 2-Track 전략으로 양산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기·전자, 반도체, IT 연구 인력을 적극 영입
- 대표적으로 LG전자 등 일부 IT 업체는 반도체 및 소자부품의 경쟁력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용 부품시장에 진출 중이며, SK, KT 등의 통신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편의서비스 시장을 타깃으로 시장 진출을 추진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후발주자로서, 원천기술 확보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향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최근 주요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투자 및 협업 사례		
분류	기업	주요 사례
기존 완성차 제조사	현대 기아	미국 현지에 공동 합작법인 설립('19) 및 국내외 20여개 자율주행 관련 업체에 투자 및 협업 진행 중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업체로는 처음으로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분기로 진입, 본선 합류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
	HL만도	ADAS 시스템에서 국내 최고의 부품 경쟁력을 확보, 자율주행 Lv.4~5 단계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확대 추진 중
빅테크 기업	LG전자	Qualcomm과 함께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자율주행 관련 통신기술을 확보하는데 집중('16~)
	네이버 랩스	자율주행 머신 위치와 모빌리티를 통합한 솔루션인 'xDM Platform'을 공개 → 도심 자율주행 맵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4단계 기술개발
	KT	5G 자율주행을 위한 원격자율주행기술 통신 환경 구축 (서울, 판교, 대구 수성시티 등)
	SKT	산학연 자율주행 공동연구 연합체 '어라운드 얼라이언스 (AROUND Alliance)' 발족 →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플랫폼 구축, 인재 양성 등에 집중

03 >> 국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관련 정책 법제

1 정책 추진 배경

- ☑ (배경) 정부는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률 제정 및 산업 발전 전략 선포를 시작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선점 계획 추진 중
 - 관련 개별 기술 개발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인프라 등 투자비가 산업 분야 및 제도 정비 등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적극 지원 중
 -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선행기술 개발, 핵심부품 국산화를 병행 추진

2 자율주행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정부 정책

- ☑ (주요 흐름) 지속적인 자율주행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전략수립기-제도 인프라 구축기-확산기-상용화 임박 4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
 - ① 전략수립기('19): 국내 자율주행 산업 정책의 모태인 「2030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을 토대로 인프라 제도 기반 구축 시작
 - ② 제도 인프라구축기('20~'22): 세계 최초로 레벨3 안전기준을 제정해 자율주행 차량의 양산 진입을 허용,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청사진 제시
 - ③ 확산기('23~'25): 시범운행구지 전국 확대(47곳), 산업부 R&D 확대
 - ④ 상용화 임박/AI 전환기('26): 「자율주행 AI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통해 운수업계·플랫폼이 함께 이익을 나눌 상생 모델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새로 명시

자율주행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정부 정책				
구분	발표일	정책명	관계 부처	자율주행 산업 육성 주요 내용
전략 수립기	'19.05 (시행)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주요 관계기관)	- 자율주행차 도입·확산·안전운행 기반 조성 법적 근거 마련 - 시범운행지구 제도, 안전기준·보험·사업화 규제 특례를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운용
	'19.10	2030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합동)	-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제시(~'27) - 레벨3 부분자율주행 상용화, '24년 레벨4 완전자율차 출시 추진(~'21) - 레벨4 시스템·부품·통신 집중 투자, 자율주행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발판 마련
제도·인프라 구축기	'20.04	완전자율주행 R&D 7개년 투자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합동)	-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7년('20~'26년) 1조 974억 원 투입 계획 발표 ⇒ 세계 최초 레벨4 R&D 투자 로드맵

제도·인프라 구축기	'20.07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국토교통부	· 운전대 잡지 않아도 차로 유지·안전 확보가 가능한 레벨3 차량의 출시·판매 허용 안전기준 마련 · 차로유지 기능, 운전자 모니터링,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DSSAD) 등 의무화 ⇒ 현대차·기아가 G90 등 양산차에 HDP/오토모드 적용 시작('22), 한국이 레벨3 상용화세계 1호국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됨
	'22.09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	· 국민 체감 모빌리티 5대 분야 전환 청사진 제시:①완전자율주행, ②항공모빌리티, ③스마트물류, ④미래서비스, ⑤데이터 · '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목표, '25년 도심항공(UAM) 실용화, '24년 여객운송제도 재검토 등 제시
확산기	'20~'24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지정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 2020년부터 시범운행구지를 단계적 지정 → 2022년 14곳, 2023년 16곳 운영, 이후 2025년 말 기준 47곳까지 확대 · 여객·화물 유상운송, 규제특례 적용으로 실증 기반 조성
	'24~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 범부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KADIF)	· 2027년 융합형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4개 부처 합동 R&D 거버넌스 가동 → 산학연 협업체계 마련 · 인식·판단·제어 등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집중 투자
	'25.02	자동차·자율주행 R&D	산업통상자원부	· '25년 총 4,990억 원 지원 (친환경차 2,328억 + 자율주행 1,997억 + 기반 665억 등) · AI 기반 자율주행 VLA 모델 등 신규과제 다수 편성
상용화 임박 / AI 전환기	'26.02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국토교통부	· AI 기반 5대 모빌리티 분야 혁신 전략 발표: ① 자율주행 강국도약: '27년 AI기반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26년 광주 200대 투입으로 도시 단위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26~) ② UAM·드론 5대 분야 국산화 ③ 탄소중립 (친환경차 비중 '30년 40%, '35년 70%) ④ 일상 모빌리티(DRT·PM·MaaS) 확산 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구축(스마트+빌딩법 ~'26)
	'26.08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제12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미국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하는 최신 정부 조치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범정부 거버넌스로 로드맵 이행 · 광주의 100대 이상 차량 동시주행 실증 도시를 전국 단위로 대폭 확장 →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 확보 ·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상생 모델 도입 ·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실증현장 안전운행·사고대응 체계 구축

04 >> 구미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육성 방안

1 추진 배경

- ✓ (필요성) 구미는 전자·ICT 중심의 제조산업 기반과 자동차·전동화 관련 부품기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미래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으로의 확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ICT,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가공, 금형·사출 등 미래차 전장부품 생산에 활용 가능한 제조기반이 집적
 - 자율주행·SDV 확산에 따라 카메라·센서, 차량용 반도체, 통신·커넥터, 디스플레이 등 전자·ICT 기반 부품이 차량의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 → 전자·ICT·반도체·디스플레이·정밀가공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미래차 산업 진입 가능성이 확대
- ⇒ 구미의 강점인 전자·ICT·정밀제조·이차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전동화·SDV 핵심부품 특화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

2 구미시 기반 분석

- ✓ (관련 기업) 구미 관내에 소재한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Top 20개 분석

구분	기업명	주요 생산품	EV 자율주행 연관성	주요 납품사	최근 매출 고용
1	KH바텍	PDU, 배터리 End Plate, 디스플레이 브라켓, 하우징, 무빙메커니즘	EV전력계통, 배터리, 디지털콕핏	(현대모비스) 롤러블 디지털콕핏 공급계약 보도	연결매출 4,249억원('25) 자동차부품 253억원
2	제트에프렘 페더사시코리아	알루미늄 컨트롤암, 서스펜션 볼조인트	경량 샤시, 현가계	현대차·기아 공급	-
3	TSR	부싱, 스티어링 커플링	조향·현가·구동계, NVH	ZF 계열, GM, Ford 등	매출 881억원('25), 약 157명
4	엘링크링거 코리아	가스켓, 캠커버	EV 배터리·연료전지·경량화 기술 보유	공시상 익명(비공개)	매출 79억원('25), 약 45명
5	성우	Motor Housing, EV Relay, 원통형 배터리 Top Cap	EV 구동·고전압 전장, 이차전지	공시상 익명(비공개)	매출 715억원('25), 약 200명
6	SM백셀	자동차 Water/Oil Pump, TCCM, 각종 배터리	EV·HEV 구동부품, Personal Mobility 배터리	현대차·기아·현대 모비스 공시, 현대트랜시스 EV 구동부품 계약	전사매출 1,725억원('24) 자동차부품 1천억원 돌파
7	인탑스	자동차 램프, 커넥터, 실린더커버, EV 배터리 셀모듈	장·커넥터·배터리 모듈	현대HL, Tyco AMP, 인지컨트롤스, 천진모비스 등 공시	매출 1,151억원('25), 약 280명
8	덕우전자	카메라모듈 정밀부품, 자동차 전장·이차전지 부품	자율주행 카메라 정밀부품 기술전환 잠재력 보유	LG이노텍·LG디스플레이 등 공시	-

9	대경테크노	ABS Tone Wheel, 센서 부품, 와이어링하네스 커넥터·터미널, 사출·프레스	제동·센싱·전장 배선	현대·기아 SQ, MSQ 등] 품질인증 확인	매출 439억원('25) 약 100명
10	디피엠테크	자동차 정밀 사출·금형	EV용 하우징·커넥터·내외장 등 전환 가능	현대·기아 SQ Mark, IATF16949 확인	-
11	대동전장	와이어링하네스·자동차 전장 배선	EV·ADAS 차량 전장화 수혜 품목	공시상 익명(비공개)	-
12	피엔티	LFP 양극활물질, 배터리 셀	구미 관내 전기차·ESS 배터리 핵심 공급망	공시상 익명(비공개)	구미에 1,500억원 신규투자, 신규고용 약 200명 (예정)
13	미래첨단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분체가공	EV 배터리 소재	공시상 익명(비공개)	구미에 1,258억원 신규투자, 본사 연구시설 단계 이전
14	동은전지	납산·Li-ion·Li-polymer·LFP용 고주파 충전기	EV·PM·AGV 배터리 충전·BaaS	공시상 익명(비공개)	-
15	LG 이노텍 구미사업장	카메라모듈, FC-BGA 등	차량용 카메라·통신·센서·조명 사업 영역 / 구미 광학·기판 기술과 높은 연계	공장별 고객은 비공개	구미에 6,000억원 추가 투자 ('25~'26)
16	LG 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	OLED·디스플레이 관련	차량용 OLED·대형 디지털 콕핏 공급망과 기술 연계	공장별 고객은 비공개	-
17	LS전선 구미사업장	특수선·산업용 특수케이블·전력선·통신선	EV 고전압 케이블·충전 인프라·전력망으로 전환성이 높음	공장별 고객은 비공개	-
18	도레이 배터리 세퍼레이 필름코리아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EV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별 고객은 비공개	-
19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	고기능 소재·산업자재	자동차 내장재, 에어백 소재, 연료전지 수분제어 장치 등 보유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등 공급	-
20	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 부문	자동차 경량 금속·자동차 부품 계열	EV 경량화 구조부품	공장별 고객은 비공개	-

< 참고 : 구미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 관련 기업 공급망 지도 >

 구미의 장점은 다수의 소재부품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에,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 계층을 한 도시 안에서 연결 가능

- 특히 구미는 아래 공급망 Layer의 ②~⑥에서 강점을 가지며, 기존의 구미가 가지고 있던 전자산업 기반을 미래 모빌리티 핵심부품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의의를 가짐
- 배터리→전력분배→전장배선→센서/카메라→디스플레이/cockpit으로 흘러가는 공급망 내에 구미가 특화할 수 있는 미래차 부품 밸류체인 형성이 가능

공급망 Layer	구미 핵심기업	핵심기술·부품
① 배터리 소재	미래첨단소재, 피엔티, 도레이 BSF 코리아	양극재·분체기술·분리막
↓		
② Cell·Battery 부품	성우, SM백셀, KH바텍	Top Cap, 셀, End Plate, 배터리팩
↓		
③ 고전압·전력계통	KH바텍, 성우, 동은전자, LS전선	PDU, EV Relay, 충전기, 특수케이블
↓		
④ 전장·배선·커넥터	인탑스, 대경테크노, 대동전장	Connector, Wiring Harness, Lamp
↓		
⑤ 센싱·광학·ADAS	덕우전자, LG이노텍	카메라 정밀부품, 광학, 센서 기반부품
↓		
⑥ Cockpit·Display	KH바텍, LG디스플레이	Display Bracket, Moving Mechanism, OLED
↓		
⑦ 조향·현가·제동	ZF렘페더샤시, TSR, 대경테크노	Control Arm, Ball Joint, Coupling, ABS Tone Wheel
↓		
⑧ 경량 구조·정밀가공	KH바텍, 대경테크노, 디피엠테크, 남선알미늄	AI Casting, Press, Injection, Housing

3 전략 방향

☑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 기존 전자·ICT 및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전환 가능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맞춤형 사업전환 지원

- 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제품, △보유공정, △주요 고객사, △미래차 전환 희망제품 등을 조사하여 미래모빌리티 기업 DB 및 공급망 지도 구축
- 기업을 「기존 미래차 기업-전환 가능기업-기술보유 잠재기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구미시가 현재 운영하는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기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래모빌리티 전환기업의 R&D를 집중 지원

☑ (주요 전략) 기존 구미 전자산업의 강점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전동화·전장화 전환을 동시에 추진

- 개별 부품 개발지원에서 벗어나 부품-모듈-시스템 단위의 시험·평가·실증이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기술개발 이후 실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 및 글로벌 Tier1 기업과 지역기업 간 공급망 연계 강화

※ [제안 : 구미시 전동화 SDV 핵심부품 거점 특화도시]

- 전자·ICT 제조기반 → 미래차 핵심부품 → 시험·실증 → 완성차·Tier1 공급망 진입
- 주요 육성분야는 구미가 실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4대 핵심부품군으로 집중

특화 분야	주요 핵심부품	지역 연계기반
① 전동화 배터리부품	EV Relay, 배터리 소재·셀	KH바텍, 성우, SM백셀, 피엔티 등
② SDV·자율주행 전장부품	Camera·Sensor 부품, 차량용 통신·커넥터, Wiring Harness	덕우전자, LG이노텍, 대경테크노, 인탑스 등
③ 디지털 콕핏·HMI	차량용 Display, Display Bracket, HMI·Moving Mechanism	KH바텍, LG디스플레이 등
④ 경량·정밀 구조부품	Motor Housing, Control Arm, 정밀 다이캐스팅·사출·프레스	TSR, 디피엠테크 등

☑ (기대효과) 전자산업 중심의 구미 산업구조를 미래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모바일·디스플레이·전자부품 기업의 자동차산업 진입을 통해 특정 수요산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능
- 기존 자동차부품기업의 전동화·전장화 전환과 신규 전장기업 유치를 통해 구미형 미래모빌리티 공급망 형성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향해 실증도시 조성, R&D 규제개선 등 전방위 지원”, 2025.11.26.
2.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자율주행 발전 위해 함께 달린다”, 2025.4.1.
3.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2026.4.7.
4. 국토교통부, “미래가 묻고, 광주가 답한다,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2026.5.13.
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레벨4 자율주행 개발 속도, 1만 5,000km 실증 의무화”, 2026.7.9.
6.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5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9. 포스코경영연구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여정과 경쟁현황-Tesla는 어떻게 경쟁우위를 구축했나?-, 2026.06
10. 한국표준협회(KSA), 「2024 자율차 핵심부품 산업 및 표준 동향」
11. KDB산업은행, 「자율주행차 국내외 개발 현황」, 2020.02
12. 한국신용정보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시장 동향: 핵심기술, 시장규모, 사업리스크 중심으로」
13. 전자신문, “글로벌 자율주행시장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4.10.18.
14. 삼성SDS 인사이트 리포트, “자율주행, 누구를 위한 기술일까요?”. 2019.10.17.
15. 로봇신문, “폭스바겐, 중국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협력 확대”, 2026.07.23

02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과 구미시 대응방안



조수현 선임연구원(chod7210@geri.re.kr / 054-479-2264)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과 구미시 대응방향

- ◆ 정부, 첨단기술 보유 혁신기업을 국가 안보역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 발표('26. 6.)
- ◆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민간 혁신기술의 안보 접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국내 지자체도 방산 혁신 생태계 선점 경쟁 가속화
- ◆ 구미시는 유·무인 복합체계 방산혁신클러스터 기반으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정책 연계 선제 대응 추진

01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 개요

- ✓ (정의) 신안보란 전통안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탈냉전 및 정보화·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위협을 의미 (※출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기술안보) AI, 무인체계,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 확보 여부가 국가 안보의 우위를 좌우하는 영역으로, 민간 혁신기술이 안보 역량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
- ✓ (정책) 첨단기술 보유 혁신기업을 국가 안보 역량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 발표('26. 6., 관계부처 합동)
 - (배경) 현대전이 AI 주도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 첨단반도체/드론/로봇/위성 통신 등 민간 혁신기술이 안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로 변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 발표 내용 중



- (주요내용) 5대 전략분야 지정 및 발굴~조달·투자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구분	내용
기술분야	무인·자율 및 로봇틱스, 초지능 및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 체계,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 기술
기업발굴	3단계(우수기업 Pool → 후보기업 → 혁신기업) 지정제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및 지정기업 대상 R&D·조달·투자 우대 적용
기술획득	한국형 OTA 도입으로 R&D-실증-구매 연계, 첨단기술형 획득제도 신설로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기간 1년 이내 단축
R&D, 실증	구매연계 R&D 전용트랙 신설(연 20억원 + 고도화·실증 20억원), 드론 실증부대 등 군 테스트베드 개방
투자·성장	정부 100% 출자 전문 투자기관(한국형 IQT) 신설, 1조원 이상 펀드 조성, 민·군 범용기술 지재권 기업 보장으로 민간시장 진출 허용
인재양성	디펜스 창업중심신대학 지정 및 청년창업사관학교·방산 전문학교 협업, 혁신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1억원 상향

* 출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관계부처 합동(2026. 6. 26.)

✔ (향후계획)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를 매월 운영 예정

- 신안보 전략분야 지정 및 관련 로드맵 수립, 신안보 후보 혁신기업 지정 방안 논의, 한국형 인큐텔 설립 방안 등 세부과제 논의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의 내용이 담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추진 중

* 중기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유관기관 참여

⇒ '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매출 1천억원 혁신기업 50개 육성 목표

방산 스타트업 육성

- ✓ (정책)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 확대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강화 및 상생 문화 조성 내용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 발표('26. 2.,관계부처합동)
- ✓ (지원사업)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청년의 국방 유입 활성화
 - 이노비즈협회(수도권), 대전시(전라·충청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상·강원권) 3개의 수행기관이 권역별로 선정
- ✓ (국방벤처센터) 중소 벤처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및 국방시장 진입 지원

창경센터·국방벤처센터 현황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산분야 진출 희망기업)			
	중소·벤처 지원기업 수			
	강원	43	부산	77
	충북	47	대전	144
	충남	84	구미	80
	전북	47	광주	103
	전남	60	경남	68
	울산	65	총계	818
	* 인천, 경기 '26.2월 신규 개소			

*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관계부처합동(2026. 02. 23.)

- ✓ (창업)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모두의 챌린지-방산)
 - (지원내용) 창업기업 대상 군 수요기업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선정 규모 50개 과제 내외) 및 후속 연계 지원

⇒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 + 테크 안보 강국 도약

02 >> 해외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동향

미국

✓ (전략) 「국가안보 과학기술전략」 발표('26. 8,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 2025 국가안보전략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 전략으로 집중 회복력 민첩성 보호 4대 기조 아래 AI, 양자, 반도체, 바이오, 우주 등 14개 핵심 신흥기술(CET*) 분야를 국가 안보 우선 투자대상으로 선정

*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 : 첨단 제조 및 소재, 인공지능(AI) 및 자율성, 생명공학 (바이오기술), 통신 및 네트워킹, 지향성 에너지, 미래 컴퓨팅 기술, 극초음속 및 첨단 미사일 기술, 정보관리 및 사이버보안, 원자력 에너지, 위치 항법 시각, 양자정보기술,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센싱 및 신호, 우주기술

- 노후 규제 폐지, 보안인가와 시험평가 절차 간소화, 획득제도 간소화 등으로 혁신 속도 제고

✓ (육성) 공공 초기투자과 신속조달을 결합한 민 군 겸용 성장모델 활용

- (IQT) In-Q-Tel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VC)로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유망 안보 기술기업 투자로 기업 성장 지원
- (OTA*) 미국 국방부의 조달 예외 제도로 상용 기술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허용

* Other Transaction Authority(특례거래권한)

대표 혁신기업	주요 내용
팔란티어 (2003)	- 인공지능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운영 - 초창기 공공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IQT 200만 달러 투자 유치
안두릴 (2017)	- AI 자율 무인기, 공중발사체, 방산 플랫폼 기술 개발 - OTA 활용 조달 사례로, 최근 미육군과 최대 30조 규모 계약 체결 - 전통 방산기업의 긴 개발 기간 대비 짧은 시간내에 완료
실드AI (2015)	- 미 공군 무인기 자율비행·군집 AI 개발 사업 참여 - AI기반 방산 및 항공우주 기술(AI 파일럿 소프트웨어 등)
스페이스 X (2002)	- 항공·우주, 통신, AI솔루션 기반재사용발사체및자궤도위성통신망구축·운영 - NASA 상업궤도수송 계약 등 공공 선구매를 발판으로 성장

독일

✓ (전략)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국가안보, 국방역량 강화의 핵심 혁신주체로 설정('26. 7,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발표)

- (자금) 미래기금 독일펀드를 활용한 군사 활용 가능 제품, 서비스 개발기업 대상 직접 투자 수단 마련 및 유럽투자기금(EIF) 벤처투자 기준 확대와 연방혁신도약청 지원 수단의 방위 분야 적용 검토
- (조달 실증) 조달절차 간소화 및 군 수요기관-스타트업 간 매칭지원, 연방군 혁신센터 · NATO DIANA 등 민 군 실증 플랫폼 연계

* 독일연방군 계획 및 조달 가속화법(BwPBBG), '26. 1. 의회 통과

✓ (육성) 안보환경 급변에 따른 정부 수요 확대로 신생기업 급성장

- 완제품이 아닌 업데이트 가능한 SW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 조항(Innovation Clause) 계약 도입

대표 혁신기업	주요 내용
헬싱 (2021)	-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드론, 전차 탑재) 개발
스타크 디펜스 (2024)	- 표적탐지와 정찰, 타격 수행 수직이착륙(VTOL) 공격형 드론 개발 - 독일 국방부로부터 5억 유로 규모 계약 수주

중국

✓ (전략) 기술안보국가 구축을 위해 민간 개발 첨단기술을 산업 국가 인프라 국방 인프라와 연결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군민융합 국가전략 추진

- 경제 기술 안보를 연계한 국가 총력전 방식, 해양, 우주, 사이버 및 AI, 바이오, 신에너지를 신영역 핵심 지정

✓ (기업) 국영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이 고가치 대규모 AI 프로젝트 주도 중

대표 기업	주요 내용
CETC (2002)	-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은 통신, 반도체 장비, 레이더, IT 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대형 방산·전자 기업
JOUAV (2010)	- 산업용 드론, 수직 이착륙 고정익 UAV 드론 생산·수출 -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계약 체결 중



대전광역시

✓ (육성계획) 국방산업 육성계획(2026~2030년) 수립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에 근거, 1차 계획 종료에 따른 계획의 연속성 확보 및 신규과제 반영을 위한 5개년 로드맵 마련('26. 3.)

- (주요내용) AI·첨단기술 기반 국방혁신 생태계 조성, 방산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강소 기업 육성, 산·학·연·군 협력 기반 혁신체계 확립 등

* 총 예산 8,736억원(국비 7,805, 시비 889, 민자 42)

✓ (거버넌스) 전국 최초 방산 중소기업 협력 공동체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출범

- 대전 충청권 본사 방산 중소기업 105개사 참여, 공동생산 공동개발, 정부과제 공동 참여, 공공조달 및 수출 지원 등 협력모델 구축 추진

- 기술개발, 시장개척, 정책대응 등 개별 기업 단독 수행이 어려운 과제의 공동 추진 체계 마련

경상남도 창원시

✓ (AI 인프라) 국내 최초 방산 전용 AI 데이터센터 건립 MOU 체결

- 상용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는 방산분야 폐쇄형 전용 데이터 인프라 수요 대응

- 100MW급 규모, 연면적 7만 4,606㎡ 규모, '31년 준공 목표

* 경남도 창원시 디노티시아 디노코어 신화철강 간 협약

✓ (펀드)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 100억원 출자

- 3개 금융사 연합출자자 참여 정책펀드로, 모태펀드와 함께 운영

* (금융사)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총괄) 중기부, 한국벤처투자

✓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기업 10개사 선정

- 창업 10년 이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3년간 기술사업화 자금과 고도화 연구개발(R&D) 비용 재정 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 (사업)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

- 실증 중심의 드론 행정서비스 구축 및 드론 기반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관광, 레저 콘텐츠 개발 등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추진 예정

✅ (창업) 경남,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경상국립대학교) 선정

- 방산 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사업화 자금 지원
- 국방 관련 기관 연계 및 방산 창업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충청남도 논산시

✅ (기반) 논산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군 교육 훈련시설 위치

- 국방산업 입주 방산기업의 군 환경 시험 실증 생태계 조성

※ [참고] 방산혁신클러스터

- ✅ 5년간 총 490여억 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방산 인프라 조성,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 중소 업체 제품 사업화 지원, 방산 창업지원 등

지정연도	지방자치단체	특화분야
2020	경남창원시	부품 국산화(시범사업)
2022	대전광역시	드론
2023	경북·구미시	유·무인 복합체계
2026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	함정MRO
	전북·전주	첨단소재
	충남·논산	AI(인공지능) 국방로봇
	인천광역시	엣지AI 기반 항공·우주

* 출처 : 청아람 2025 1+2월호,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04 >> 구미시 대응방향

구미시 현황

- ✓ (기반) 경북 구미 유 무인 복합체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23)
 - 국가산단 내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무인수상정 테스트베드 등 구축
 - 매출 360억 원 증가와 고용 창출 199명, 투자 유치 60억 원의 성과
- ✓ (지원) 2026년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 권역 내 방산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업별 성장로드맵 수립과 맞춤형 컨설팅, 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예정

구미시 대응방향

- ✓ (대·중·소 협력) 관내 체계기업-협력업체 간 상생 모델 선제 구축
 - 부품등록 우선사용제도, 인프라 공동활용 등 관내 협력업체의 핵심부품 개발 국산화 과제 발굴
 - 공동개발 제품의 상생협력 우수제품 지정 및 동반수출 참여에 대비한 관내 기업 매칭 추진
- ✓ (딥테크 기업육성) 클러스터 실증 인프라와 관내 제조기반을 중심으로 방산 SW SI 딥테크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추진
 - 향후 신안보 혁신기업 단계별 지정에 대비해 관내 대상 기업군 사전 파악 및 지원 수요 점검 필요
- ✓ (소부장 특화단지) 방산 부품 소재 특화단지 유치로 관내 부품 공급망 집적을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도모
- ✓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응, 시범사업 성과의 국가사업 연계 추진
 - (실증기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23, '25)과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실증
 - (산업연계) 관내 방산기업 전자 제조기반과 지역대학 실증 역량을 묶은 대드론 생태계 구축 추진

참고자료

1.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관계부처 합동(2026. 6. 26.)
2. 미국 CIA처럼 정부가 직접 안보 벤처 키운다...500억 펀드 조성, KBS 뉴스(2026. 06. 26.)
3. '신안보 혁신기업 특별법' 속도전...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경제(2026. 8. 12.)
4. Global Equity 안두릴 (Anduril Industries, 미국 비상장), 삼성증권(2026. 5. 15.)
5. Global Equity 스페이스X (SpaceX, 미국 비상장), 삼성증권(2026. 5. 22.)
6. [뉴스페이스 시대⑥] 우주신기술 13건 나왔지만...공공조달은 아직 '준비 중', E코노미톡뉴스(2026.07.31.)
7.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4개 지역 업무협약 체결, 방위사업청(2026. 7. 15.)
8. BNK경남은행, 방산·공급망 벤처 육성 펀드에 100억원 출자, 경남신문(2026. 8. 18.)
9. 대전시, 전국 최초 방산협동조합 출범...방위산업 핵심 거점도시 도약, 전자신문(2026. 01. 22.)
10. National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기술패권 전쟁의 최전선: 미국의 국가안보 과학기술전략) 2026. 08. 20.)
11. 중국의 국방AI, 전재우(한국국방연구원), EAI(동아시아연구원) 워킹페이퍼(2025. 11. 20.)
12. '시대전환'에 따른 독일 국방조달법의 대응과 변화, 법률신문(2026. 02. 28.)
13. '시대전환'이 낳은 유니콘, 독일 방산 스타트업 '스타크'의 질주, 비즈한국(2026. 02. 27.)
14. [차이나 급보] CSIS가 선정한 중국의 10대 과학기술 드라이브, 헬로우디디(2026. 04. 26.)
15. [중국 AI 제국 특별편 ③] 중국 AI와 군민융합, 중국통신(2026.06.24.)
16. 방산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제화를 위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2026.8.5.)
17. 구미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성과 가시화, KBS뉴스(2026. 07. 02.)
18.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관계부처합동(2026. 02. 23.)
19. 경남도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 기반 방산 창업 생태계 구축, 경남도민신문(2026. 08. 04.)
20. 구미, '드론 띄우고, 드론 잡는 도시'로...국가 드론·대드론 클러스터 정조준, 대구일보(2026. 08. 23.)

| 연구진

최은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소장

오선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제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동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장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수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수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기획연구소 선임연구원

「구미 현안분석 브리프」는 국가와 지역 산업·기술 정책, 지역혁신, 현안이슈 등 각종 동향과 이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결과를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본 발간물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발간물의 내용을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현안분석 Brief

발간호수 : 2026년 8월호

발간물명 : 구미 현안분석 Brief

주 소 : (3917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문 의 : 구미정책기획연구소(054-479-2263)

